

시끌벅적 e-스타

'부대 마크속 진실' '군대스리가' 등 군대 동영상 인기



남자들이 일생동안 우려먹는 이야기, 듣는 상대방은 지켜준데 해도 해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될까. 바로 군대 이야기다. 경정이나 하등 추억을 더듬는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보면 모두가 죽도록 고생했다. 편하게 군대 생활 했다는 제대 군인들은 한 명도 없다. 사실을 부풀리는, 이른바 '뺑'도 심하다.

39사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군대를 다녀왔거나 입영을 앞두고 있는 남자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는 지난 11일 올라온 뒤 조회건수가 13만건을 넘어섰다. 또 군대에서 즐겨 먹는 뺑글이(라면), 전투 식량, 전투복, 트레이닝 복 등을 소재로 한 광고 동영상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나의승의 음·악·산·책

지난 6일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타계 소식이 전해졌다. '세계 최고의 노래'라는 수식어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의 명에는 이태리의 전통 속에서 과거 '카루소', '질리', '코렐리' 등의 전설과도 같은 명가수의 반열에 나란히 서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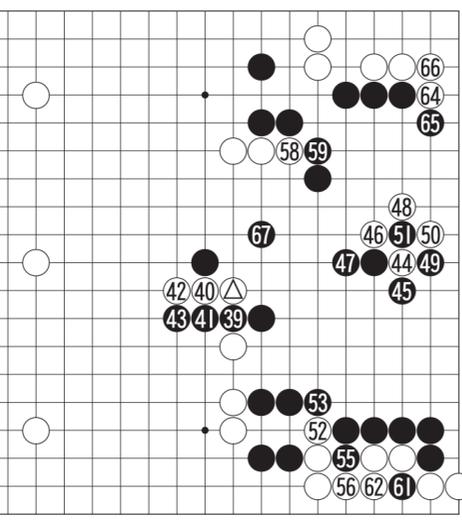


세한 감성의 소리를 들려 주는 '카레라스' 그리고 그가 소리 할 때면 안도의 숨을 고르게 되는 '파바로티' 우리가 그의 소리에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까닭에는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음정이 안정되게 느껴진다는 점과 대부분이 이태리 언어인 아리아들의 향연에서 이태리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언어 뉘앙스의 표현력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고 그에게 감동한 청중들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립 박수와 환호와 수십 번의 앙콜 요청, 그리고 그들의 발 구름 때문 일수도 있을 것이고 그 말을 어찌면 이태리 특유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한 사람의 대형 가수의 출현이 극장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갖는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표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또 다시 그와 같은 위대한 가수가 나오기 까지 우리는 얼마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

이. 그의 타고난 소리는 흔히 발견되는 창법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서 그의 제자 중에도 호흡은 배울 수 있었지만 같은 혹은 그와 유사한 소리는 만들지 못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물은 예술가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조건이다. 아랫둔 '테너' 그들은 최고 최선이었다. 20세기 후반부터 그래 왔지만 이제는 그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더 이상 빅테너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카루소나 질리 처럼 전설이 될 것이다. 후시 '도밍고'와 '카레라스'는 '파바로티'를 추모하는 공연을 빅3의 프로듀스 '파보 에르비'에 요청할 지도 모르겠다.



바둑소식
한·중·일 바둑 최강국을 가리는 농심신라배 각각 대표 선수들이 확정됐다. 한국에서는 와일드카드를 받은 이창호와 함께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한 박영훈·목진석·조한승·홍민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바둑소식
농심배 출전 선수 확정
한·중·일 바둑 최강국을 가리는 농심신라배 각각 대표 선수들이 확정됐다. 한국에서는 와일드카드를 받은 이창호와 함께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한 박영훈·목진석·조한승·홍민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81. 세계 '3대 테너'로 불리는 성악가가 지난 6일 새벽 7시 15분을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1961년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의 로돌포 역으로 오페라 무대에 공식 데뷔했고 수많은 오페라와 다양한 무대 활동을 통해 세계 최고의 테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Table with 12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te 9월 13일 (Wednesday, 9월 8일 庚戌).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English section titled '굿모닝 잉글리쉬 <991>' with a 'Please fill it up' exercise and a list of questions and answers.

Japanese section titled '오하오우 니혼고 <991>' with a 'パソコンの練習(れんしゅう)かい' exercise and a list of questions and answers.

Chinese section titled '니하오 쑹구위 <181>' with a '不要那么复杂' exercise and a list of questions and answers.

Chinese section titled '한자 이야기 <608>' with a '一字千金(일자천금)' exercise and a list of questions and answers.